

“경찰에 책임 떠넘기기, 정권 핵심인사 지키기 아닌가”

대통령실 국감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사고냐 참사냐... 시작부터 신경전 총리·행안장관·경찰청장 경질 촉구 김대기 실장 “수습·원인 규명 우선”

8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또 용산사장은 사고 1시간15분 뒤에도 여전히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을 부각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문제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 인사들의 책임을 제기하며 이명박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책임 1순위로 지목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발생한 인재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었고 망연하고 책임 회피로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책임을 맡아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거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따져 물은 뒤 “고위공직자들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은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골목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때죽음 당하게 만들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행안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하게 서울시장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

찰의 대대적 혁신’ 언급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 탓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이 많다.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정권 핵심 인사는 지키려는 건가”라며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무슨 사건이냐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다. 일단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다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육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경찰의 112 신고센터가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게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장동혁 의원은 문진석 의원의 ‘희생자 명단 공개’ 문자메시지 노출과 관련, “156명이 희생된 이 사건을 두고 사고 대신 참사라는 용어를 쓰자고 목소리를 높이면 사고가 난 그다음 날부터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이후 상황 파악을 위해 관할 용산경찰서 서장 등에 연락을 시도한 행적이 시간대별로 공개됐다. 경찰 수뇌부 보고 체계 마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대통령실과 경찰 사이 보고·지시 시차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이 이날 국정감사에 제출한 보고 내용에 따르면, 국정상황실은 사고 당일 밤 11시 18분 먼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증인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 경찰청 치안상황담당관에게 전화했다.

사고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지 1시간이 넘게 지난 뒤였지만, 경찰청 치안상황담당관은 여전히 “서울경찰청과 소방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2분 뒤인 오후 11시 20분에는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11시 25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용산경찰서 지휘 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던 셈이다.

국정상황실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경찰 수뇌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상황을 공유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경찰청장·서울청장 집무실 등 55곳 압수수색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 인력 84명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 후 옛새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집무실도 포함됐다. 이들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헬리콥터 대비 안전 대책

을 소홀히 하고 참사 발생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부실한 사고 수습을 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명박 전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 전 서장은 헬리콥터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헬리콥터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한 경위와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 전 서장은 김 서울청장 등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하고,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 정보·경비부장실과 112 상황실장실, 용산경찰서 정보·경비과장실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대원들 빨리” “경찰 출동 독촉”...긴박했던 119 무전 녹취록

10시18분에 경찰 요청 첫 언급

용산소방서장 50분 만에 첫 지휘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급박한 구조 상황을 보여 주는 소방 무전 기록이 공개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가 공개한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용산 이태원동 구조 관련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발생 최초 신고가 접수된 밤 10시 15분 이후 소방 무전에서 경찰에 대한 요청 내용이 언급된 것은 3분 뒤인 10시 18분이 처음이다.

이후 10시 20분과 24분에도 ‘경찰 출동 독촉 해달라’고 요구한다. 10시 31분에는 현장 출동 지휘팀장이 ‘경찰에 골목 앞쪽에 있는 행인을 대로변으로 유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10시 26분 상황실에서는 “현재 신고 건수가 15건 정도”라고 전파했다. 지휘팀장은 10시 31분 “해밀턴 호텔 바로 옆 골목에 30명 정도 되는 행인이 넘어져 있는 상태고 구급차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때 3명의 의식이 없다는 신고 내용이 공유된다.

10시 42분에는 “15명 정도 CPR(심폐소생술)을 실시 중인데 인원이 모자란다. 대원들 빨리...”라며 추가 출동 요청이 들어왔다. 10시 43분 지휘팀장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해밀턴호텔 골목 경사로에 20명 정도 넘어져 있는 상태’라고 했다.

지휘팀장은 “호텔 좌측 골목 쪽으로 진입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찰에 속히 요청해달라”고 보고했다. 11시께에는 “30여명의 의식이 아예 없다.”, “대원들 더 보내주셔야 한다”는 무전이 들어왔다. 용산소방서장은 11시 5분 무전으로 자신이 지휘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11시 9분 해밀턴 호텔 뒤로 추가 소방력 지원을 요청하고 “경찰력을 해밀턴호텔 뒤편으로 많이 보내줘야 한다. 빨리”라고 경찰 지원도 요구했다. 또 호텔 뒤편에 CPR 환자가 40명 정도 있다면 추가 소방력의 신속한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11시 13분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은 대응 2단계 상황을 알렸다. 용산소방서장은 “CPR 환자가 하도 많아 몇 명인지 셀 수도 없다”면서 추가 소방력과 경찰력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용산소방서장은 11시 36분에는 비상을 걸어 집에 있는 비민자들 다 동원하라는 지시도 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11시 48분 녹취록에 처음 등장했다. 그는 “현 시간부로 대응 3단계를 발령한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취임 6개월만에 한남동 관저 입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7일 한남동 관저 입주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전날 저녁부터 서초동 사저가 아닌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한남동 관저에서 출근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지 않고 비공개로 종교계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출근길 문답도 없었다.

그동안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교통을 통제해도 10분 가까이 걸렸다면, 한남동 관저에서 집무실까지는 그 절반인 5분 안팎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을 건너지 않아 일반 교통에 흐름에 주는 영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서초동 사저는 매각하지 않고 당분간 빈 집으로 둘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